



ITU-T SG11 제네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센터장 **이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안재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연구원 **현욱**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식**



본 고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T SG11 정기 회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1. 회의개요

- 회의명 : ITU-T SG11 국제표준화 회의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 회의기간 : 2005년 9월 5일~9월 9일
- 회의참석규모 : 80여 명(한국 6명 참석)

SG11은 IP(Internet Protocol), 이동성(mobility), 멀티미디어 등에 관련된 기능들(functions)을 위한 시그널링 요구사항(requirement) 과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study group이다. 이 SG에서는 기존의 BICC(Bearer Independent Call Control), ATM, N-ISDN, PSTN간의 연동 및 상호 접속을 비롯하여 NGN으로의 convergence를 위한 기능(function)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각 Question들로 나뉘어져 처리되고 있다.

	Questions	Title
WP1	1/11	Network signalling and control functional architectures in emerging NGN environments
	2/11	Applicat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WP2	3/11	Sess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4/11	Bearer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5/11	Resource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Questions	Title
WP3	6/11	Assistance in preparation of a handbook on the deployment of packet based networks
	7/11	Signalling and control requirements and protocols to support attachment in NGN environments
	8/11	Protocol Test Specifications for NGN

금번 SG11 회의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이후 NGN과 관련하여 SG11의 향후 표준화 진행 방향 결정 및 각종 시그널링에 관련된 중요한 회의로서, 1건의 기고서(Contribution) 및 19건의 지연 기고서(Delayed contribution)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6건이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기고서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 개회 및 폐회 주요 내용

2.1 SG11 Opening Plenary 회의

9월 5일 오전에 개최된 opening plenary 회의는 의장인 OIT(Osaka Institute of Technology)의 Mr. Yukio Hiramatsu(Japan)가 개최하였고, 한국의 이형호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SG11 부의장이 배석하였으며, 1명의 부의장인 Mr. Leslie Graf(WP3 의장, 오스트레일리아)가 궐석하여 해당 WP의 부의장인 Mr. Andrey Kucheriavy가 WP 3 plenary 회의의 운영을 담당키로 하였다.

FGNGN(Focus Group on Next Generation Networks)의 종료시점이 근접함에 따라 NGN coordination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한 두 건의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가 검토되었다. 이는 NGN Release 1 Description의 draft를 포함하여 NGN의 진행을 확인하고, SG11 의장이 인지하는 주요

관련 NGN deliverable마다 SG11 측의 Question들을 지정하여 협력관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이는 별도의 NGN coordination session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갖고, Mr. Martin Dolly 에 의해 처리되도록 지정되었다.

또한 Plenary 회의를 통해 의장은 SG11 security coordination meeting을 security coordinator인 Mr. Joe Zebarth(Canada)의 주제로 개최할 것을 지정하였고, 회의에 제출된 문서들을 각 WP로 지정 할당 하였다. Plenary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인 권고안의 승인절차에 있어 독일에서 제안한 기고서(COM/11-3)는 IEPS(International Emergency Preference Scheme) Phase 2 documents에 대해 AAP(Alternative Approval Procedure) 대신 TAP(Traditional Approval Procedure) 절차를 밝게 하라는 제안에 대해 영국의 재청이 있었고, 제안은 승인 되었다.

2.2 Closing Plenary 회의

SG11의 closing plenary 회의는 9월 9일 오전에 개최 되었다. SG11의 이번 회의에서는 총 19건의 지연 기고서, 1건의 기고서 외에 86건의 TD 문서가 다루어졌으며, NGN coordination과 Security coordination에 대한 SG11 내부회의의 결과가 총 5건의 연락문서로 외부 발송되었다. 또한, IEPS 지원을 위한 기존 신호방식 권고안(Q-시리즈: ISUP, BICC, DSS2, AAL2, IPBCP)의 개정을 위한 11건의 개정 권고안에 대하여 TAP 절차를 추진하도록 승인하였으며, IEPS 지원을



위한 신호방식 요구사항이 ITU-T Series Q Supplement 53으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FGNGN 미팅이 런던에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므로 이와 연계하여 Q.5/11 interim rapporteurs meeting을 2005년 11월 21일~22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기로 하였다.

WP별로 발표된 보고서들은 각 WP내의 Question 들이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SG13과의 NGN 관련 joint rapporteur 미팅 등을 포함한 차기 회의의 일정 및 작업계획(work plan)을 정하고 회의는 폐회되었다.

3. 회의 주요결과

3.1 Working Party 1 회의결과

- 이번 WP회의에서는 Q.1/11과 Q.2/11의 작업 항목(work item) 중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항목들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 현재로서는 뚜렷한 진행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FGNGN의 최종 deliverable 문서를 기반으로 Q.1/11과 Q.2/11의 scope를 새로 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Q.1/11과 Q.2/11의 작업방향에 대한 기고를 요청했다.
- 현재 WP1의 작업은 NGN release 1의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제한되어 있지만 조만간 FGNGN의 결과가 해당 SG로 전달될 예정이므로 Q.1과 Q.2의 작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NGN output 문서의 검토와 작업 scope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 상태이다.

3.1.1 Q.1(Network signalling and control functional architectures in emerging NGN environments)

- Q.1 회의에서는 바로 전 주에 열린 FGNGN의 output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한국에서 제출한 세 편의 neighbor discovery mechanism에 관한 기고를 검토하였다.
- FGNGN output 문서인 NGN Release 1 Scope (FGNGN-OD-229), NGN Release 1 Requirements(FGNGN-OD-230), FGNGN-FRA version 6.3(FGNGN-OD-223), FGNGN-IFN(FGNGN-OD-224)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Liaison 형태로 FGNGN과 SG13으로 보내지도록 결정하였다.
- 한국에서 제안한 neighbor discovery mechanism에 관한 기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주로 transport stratum의 transfer sub-layer에 속하거나 network attachment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지연 기고서 D59, 지연 기고서 D60의 경우에는 타 SG들과의 구체적인 영역을 구분한 이후에 work item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지연 기고서 D61은 WP1 closing plenary 회의에서의 결과에 따라 baseline document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WP1 Closing plenary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본 기고서의 scope와 Q.1/11과의 연관성을 좀더 명확히하기를 요청하였으며, 만일 필요하다면 차기 회의에서 새로운 Question을 만들거나 현재의 Q.1/11의 확장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 SG11 내의 연관된 Question이나 다른 SG에게도 이 기고를 발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특히 SG13의 관련 Question들과는 joint rapporteur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기고 활동 독려를 요청하였다.

3.1.2 Q.2(Applicat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기고도 받지 못하고 다음 회의 시 본 Question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 FGNGN output 문서와 관련 liaison의 발표와 검토가 있었으며 다음 회의 시 작업에 대한 item을 설정하기로 했음.

3.2 Working Party 2 회의결과

- 이번 WP회의에서는 7차 및 8차 FGNGN으로부터의 Liaison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draft deliverables에 대한 토론과 함께 signaling requirements와 control protocol들에 관계되어 WP2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각 Question에서 review 하였다.
- Q.3/11과 Q.4/11의 Joint meeting을 통해 IEPS 지원을 위한 기존 신호방식 권고안(Q-시리즈: ISUP, BICC, DSS2, AAL2, IPBCP)의 개정을 위한 11건의 개정 권고안 및 IEPS를 위한 신호방식 요구사항에 관련된 supplement 문서를 SG11 closing plenary 회의에 상정기로 함.
- Q.11/16, Q.15/16 및 ATM Forum으로 보내질 각각의 Liaison을 작성함.

3.2.1 Q.3(Session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 지연 기고서 D52는 Q.1980.1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사용될 원칙으로서 No duplication, No ISUP state, Bounded interworking specification, Ongoing conformance to standard SIP 등이 합당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되었다.

- 그리고 SIP 확장들에 대한 주기적인 트래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는 NSS(Narrowband Signalling Syntax) interworking이라기 보다는 NGN에서 좀더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지연 기고서 D53은 SIP+NSS와 BICC/ISUP, SIP-I, DSS1 at UNI, pure SIP within public network, pure SIP at UNI 간의 interworking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서로서, SIP+NSS와 BICC/ISUP, SIP-I, DSS1(UNI 측)에 대해서는 interworking을 다루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으나, pure SIP 간의 interworking은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SIP profile 간의 SIP-SIP interworking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림.
- SIP기반 NNI 신호방식에 관한 지연 기고서 D67이 제안되었으나, 이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여러 Question 및 SG의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Q.3에서 승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NGN-JCA(Joint Coordination Activity)를 통해 해당 문서의 내용에서 아이템을 분류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Q.3/11에서는 다음과 같은 guideline을 만드는데 동의함.
 - SIP profile 규격 간의 interconnection을 위하여 IETF RFC들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should", "may", "must" 등)
 - 서비스 provider 간에 교환되어야 할 management information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를 통해 SIP를 전달하는 preference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고서 제출 요청함.



- 지연 기고서 D67에 관련하여, Q.3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SIP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천명함. 이미 IMS(IP Multimedia Subsystem)에서의 SIP, NGN에서의 SIP, pure SIP등 여러 버전이 상존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새로운 버전의 SIP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Q.11/16에서 전달된 Liaison 문서인 임시 문서 (Temporary Document) TD172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이 문서는 Q.11/16이 모뎀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왔고 최근에 V.150.1, V.152를 개발했으며 향후 NGN기반의 PSTN/ISDN emulation/simulation 서비스를 제공할 때 V.150.1, V.151, V.152, T.38을 참고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Liaison을 담고 있음.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음.
- FGNGN Output 문서인 FGNGN-OD-224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IMS와 NGN간의 용어 alignment의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전반적 특이사항 없었음.
- SG11 워크아이템 목록들 중 Q.3에 관련된 목록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일부 워크아이템의 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editorial work이 있었으며 해당 문서는 ITU-T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3.2.2 Q.3/Q.4(Bearer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Joint meeting

- 9월 6일~7일간 두 차례의 joint session이 있었으며 Q.4는 Q.7/13, Q.12/13과의 Joint session과 Q.3와의 joint session만이 있었으며 별도의 Q.4 독자 session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IEPS에 관련되어 SG16에서 넘어온 Liaison 문서인 임시 문서 TD174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이 승인됨.
- IEPS “Phase 2” 프로토콜에 대한 최종 문서

(TD48, TD49, TD59R1) 검토가 line-by-line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채택 되었음.

- 지연 기고서 D68 “IEPS: Location of Priority Mapping” 문서를 통해 각 국가간의 Priority mapping에 관련된 기술이 추가되었고, informative에서 normative로 한 단계 더 강한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맵핑을 지원하지 않는 게이트웨이로부터의 호(call)에 대한 처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가 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 IETF에서 표준화된 RFC3388과 RFC4091의 개념을 수용하여 Q.1970(IPBCP)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의 지연 기고서 D56에 대한 상세한 발표 및 검토가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됨.
- SG13의 TD70과 동일한 내용인 TD179 “ATM and Frame Relay/MPLS control plane interworking: Client-Server”를 새로운 draft recommendation(Y.mplssccpi)으로 채택함.
- SG13의 TD69과 동일한 내용인 TD180 “Use of Virtual Trunks for ATM/MPLS Client/Server Control Plane Interworking”을 새로운 draft recommendation(Y. mplsctpi)으로 채택함

3.2.3 Q.5(Resource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 Resource Control Protocol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는 Q.5는 주로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졌음.
- Q.rcp.cci를 Q.rcp.1로, Q.rcp.nci를 Q.rcp.2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Q.rcp.3, Q.rcp.4의 새로운 draft recommendation을 만들었으며, Q.5에서 작업중인 draft recommendation들은 다음과 같다.
 - TD205 “Draft recommendation of Q.rcp.1” rcp1(Resource control protocol no.1)은 NGN 구조의 Gq’ 인터페이스(RACF)의 policy

decision function과 services stratum의 service control function간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토콜임.

- TD208 “Draft recommendation of Q.rcp.2” rcp2(Resource control protocol no.2)은 NGN 구조의 Rp 인터페이스(단일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내의 서로 다른 RACF의 C-TRCF간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토콜임.
 - TD207 “Draft recommendation of Q.rcp.3” rcp3(Resource control protocol no.3)은 NGN 구조의 Re 인터페이스(Transport stratum내의 A-TRCF와 ENF 또는 ANF간의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토콜임.
 - TD206R1 “Draft recommendation of Q.rcp.4” rcp4(Resource control protocol no.4)은 NGN 구조의 Rc 인터페이스(A-TRCF 또는 C-TRCF와 적합한 access 또는 core transport processing functional 엔터티 간 인터페이스)에서의 프로토콜임.
- Interim rapporteur 미팅을 11월 21일~22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tsg11q5@ties.itu.int 를 통해 공지하기로 하였다.

3.3 Working Party 3 회의결과

WP3는 부의장인 Mr. Andrey Kucheriavy가 진행하였으며, Q.6은 기고서 입력이 없었던 관계로 WP3 opening plenary 회의에서 Q.6(Assistance in preparation of a handbook on the deployment of packet based networks)의 회의를 겸하였다. WP3 plenary 회의는 ITU-D Q.10 1/2와의 liaison statement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SG11이 지난 회의에서 검토하여 발송한 “Communications for rural and

remote areas”에 대한 답신 문서로서, rural networks에서 SIP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SG11의 검토요청에 대해 자신들의 검토내용을 회신한 것이다. 해당 검토내용은 향후 Q.6/11의 작업에 참조되도록 noted 되었다.

3.3.1 Q.7(Signalling and control requirements and protocols to support attachment in NGN environments)

- Q.7은 한국의 안재영 rapporteur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한국에서 제안한 3건의 지연 기고서와 2건의 임시 문서들을 처리하였다. Rapporteur는 두 편의 TD 문서(FGNGN 직전 미팅 보고서 및 SG11 Q.7 전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함께 검토하였다. Q.7 보고서를 통해, 전화에서 SG11 Q.7이 3개의 work item을 생성하였고 이에 대한 기고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시하였으며, FGNGN 보고서를 network attachment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관련 사안의 진행에 대한 진도와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FGNGN에서 deliverable이 승인완료되어 SG11 Q.7으로 넘어 오는 시간이 최악의 경우 내년 중반이 될 수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 기고서 D57 Corr-1은 FGNGN의 요구사항이 추후 변동할 경우 SG11의 문서 내용이 일관성을 잃는 우려가 있으므로 SG11에서 먼저 관련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FGNGN의 deliverable이 승인완료될 때까지 Q.7은 관련 text들을 living list에 보관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회의에서 승인되어 Q.7의 living list 구조 재편 및 신규 생성에 적용되었다.
- 지연기고서 62은, “Network Access Security Aspect in Attachment Control and Signaling”에 대한 기본 text를 제안한 것인데, 내용의 대부분이 수정없이 채택되어 living list의



WI #2 section2에 삽입되었다. 특정한 프로토콜 명칭이 구현중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점과, 일반 요구사항 보다는 신호방식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코멘트가 추가되었다.

- 지연기고서 D58 Corr-1도 상기와 같은 새로운 text를 제안한 것으로, emerging access technology 중 하나인 networked RFID system이 network attachment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Q.7의 참석자들은 일부 용어 명칭 변경(USN 을 WSN으로 등)을 제안하였고 이후 전체 text가 채택되었다. 역시 일반 요구사항보다는 신호방식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코멘트가 추가되었다.
- 해당 기고서의 내용들은 보고서와 living list에 수록 되었으며, FGNGN R1의 요구사항이 승인 완료되는대로 권고안으로 개발기로 하였다.

3.3.2 Q.8(Protocol Test Specifications for NGN)

- Q.8은 지연기고서 D.55 “Definitions to draft new Recommendation Q.tt1 - Methods of testing and model network architecture for NGN technical means testing as applied to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s”을 검토 하였으며, “Classification of NGN technical means”를 기술하는 새로운 chapter를 채택하였다. 이는 권고안 Q.tt1의 일부로 삽입될 것이다.
- 지연 기고서 D.50 “Conformance Tests for the “Interworking between SIP and BICC Protocol or ISDN User Part(Q.1912.5) and Network Integration Tests(NIT) between SIP and ISDN/PSTN” 를 검토하였으며, 관련한 ETSI의 프로토콜 시험 규격이 완성되는 대로 권고안 Q.ttx에 삽입기로 하였다.

4. 관찰 및 의견

SG11 회의를 통해 한국이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 기고서 입력의 비율(20편 중 6편)뿐 아니라, 현장의 회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실행력에 대한 신뢰와 작업 분담의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WP3 의장 권석등의 상황으로 이형호 센터장의 부의장으로서의 발언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안재영 라포치의 순탄한 Question 운영 및 보안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 기술진의 양호한 문서 제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침체되어 있던 SG11이 FGNGN의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작업의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내년도의 NGN-JRG(가칭) 등을 의식한 NGN coordination, security coordination 등을 통해 독자의 주장과 대응 자세를 갖춰가고 있다. 또한 유력한 표준기구인 ETSI TISPAN이 프로토콜 시험, network attachment 등 분야에 있어 SG11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SG11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국제표준화 참여상황을 확보한 것이며, 이제 한국의 고유기술에 기반하여 양질의 국제표준 권고안 개발이 용이한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의 NGN 표준화가 상위의 구조와 서비스를 정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소요한 반면, 산업체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stage 3 상세 규격에 대한 IPR 포함 입력이라는 궁극적인 표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SG11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궁극적인 표준 기술경쟁의 장이라 볼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표준 기술개발 과제수행을 통해 핵심 IPR을 개발하고, 국내표준화 역량을 규합하여 NGN 프로토콜 및 신호방식 국제표준화에 진입할 적기가 시기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본 회의는 이를 준비하는 최종 역량 점검회의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국에서 제출한 기고서 및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대표저자	기고서명	결과
COM11-D-0057 Corr1	안재영	Work items management in Q.7/11 living list	제안된 방법론을 채택하기로 결의, Q.7/11 living list 문서 작성시 문서 형식 등 구성에 적용함
COM11-D-0058 Corr1	안재영	Signalling Architectures and Requirement of Networked RFID system	제안된 text를 채택, Q.7 living draft 문서로 포함됨
COM11-D-0059	최진식	Proposal to initiate a SG 11 work item to develop adjacency discovery protocol for supporting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	SG 11내의 작업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타 SG와의 작업영역 구분) 후 work item으로 반영.
COM11-D-0060	최진식	Proposal to initiate a SG 11 work item to develop Link layer adjacency discovery protocol for supporting Control and Signalling Requirement	차기 회의에서 SG13과 Joint Meeting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COM11-D-0061	최진식	Requirements for Neighbor discovery protocol in Signaling and Control	SG 11내의 작업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타 SG와의 작업영역 구분) 후 base document로 반영. 차기 회의에서 SG13과 Joint Meeting 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COM11-D-0062	정수환	Proposed text for the work item "Network Access Security Aspect in Attachment Control and Signalling	Q.7 living list work item으로 채택
TD-GEN-193	안재영	Question 7/11 Agenda	채택
TD-GEN-201	안재영	Q.7/11 living list	채택
TD-GEN-203	안재영	Q.7/11 Meeting Report	채택

5. 차기 회의일정 및 기타 사항

다음 회의는 SG13 및 SG19와 함께 2006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T 빌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차기 회의에서는 SG13과 NGN 관련 Joint Rapporteur Meeting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NGN 관련 SG 의장단 모임인 NGN-JCA 회의도 함께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FGNGN의 종료에 따른 향후 NGN 업무 관련 표준화 추진 원칙 및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FGNGN

의 결과물을 관련 SG에 할당하기 위하여 prime SG와 협력 SG를 지정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관련 문서는 <http://www.itu.in/ITU-T/studygroups/com13/ngnjca/index.html>의 Doc17과 Doc18이다. 이에 따라, 차기 SG11 회의에서는 NGN 관련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부터 NGN에 관련된 SG11, SG13, SG19의 각 Question들 간에 co-located NGN rapporteur meeting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marketing name)을 정할 예정이고 ITU-T 사무국에서는 Collective Letter로 회의 소집을 해주기로 하였다. **TTA**